

세계인 입맛 순창에 담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순창장류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가을이 나온 관광객과 군민 등이 축제장으로 운집하면서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17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기념식에서 김종국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하고 있다.

'11개 읍면 고추장 모아'



축제 기념 퍼포먼스로(앞 왼쪽부터) 심민 임실군수,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신정이 순창군의장, 순창군 11개 읍면의 고추장을 모아 하나의 장독에 합치고 있다.

'순창군민의 장 수상자들과'



지난 14일 축제 기념식 중 2022 순창군민의 장 수상자들에게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버스킹 공연



최영일 군수가 군민들과 함께 축제장 버스킹공연을 즐기고 있다.



지난 14일 순창군의 대표축제인 '제17회 순창장류축제'가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막했다. '도전! 다함께 순창꽃추장 만들자' 이벤트 참여자들의 테이블 배열이 '순창'을 그리고 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축제장을 찾은 내빈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 행렬 퍼포먼스

'민속놀이 경연대회 마치고'



지난 14일 순창장류축제 개막 첫날 프로그램으로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대회가 끝난 뒤 참여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꽃추장을 만들자'



'도전! 다함께 순창꽃추장 만들자'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팔씨름 한 판'



축제 이벤트로 열린 팔씨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인간힘을 쓰고 있다.

'짚신을 만들자'



축제 이벤트로 짚신만들기에 참가한 어른신들이 새끼줄을 엮고 있다.

'고추장만들기 체험'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순창 전통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